

성신 강림 대축일

기도서 309 면

제1독서: 사도 2, 1-11

제2독서: 고린전 12, 3b-7.

12-13

복음: 요한 20, 19-23

숲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목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5098 3201

강론



오소서 성신이여

강인찬 신부

인간의 조건을 잘 아시는 주님은 협조자를 보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실제로 성령을 보내 주셨다. 오늘이 바로 성신강림 대축일이다.

오늘 제 1독서에서 바람(위력적인 힘), 불(정화), 혀(사상전달)의 형상을 통해 사도들 위에 내려 오심으로써 성령의 작용을 더욱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다.

과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으로 가득차서 성령이 시키는대로 하였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보다 주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신앙이 순화될 뿐 아니라, 보다 활발하고 실천적이었다. 두려움없이 예수를 죽인 죄를 힐책하며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또한 법정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교하였다. 그렇다, 뿌리와 줄기에 물기가 통하여 흐르며, 움직이는 생명력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말과 행동 속에서 성령은 생명을 성장시키며, 썩음이 솟아나듯 깨끗하게 하시고, 병사르듯 굳세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뿐 아니다.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키시며,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어 주시고, 은혜도 다양하게 주신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도록 일깨워 주신다. 바오로사도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다. (고린전 12, 3)

생각해 보라, 우리가 2,000년전의 예수라는 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이성, 철학적 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번도 본적 없는 그분을 평안한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의 체험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요한 1서, 4.13)

한마디로 사랑도, 일치도, 믿음도, 모두가 성령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알고 또한 이 모두를 원하는 우리는 오로지 "오소서, 성신이여"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사랑과 봉사의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사랑과 일치, 평화없이 성령이 거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성령과 더불어 산다면 사도들처럼 살고 있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사도들처럼 살지 않고, 이기주의적이고 타협적이며, 사랑과 봉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도 성령이 메마른 표시다. 성령이 메마른 삶이라면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8, 9)

(정음 천주교회 주임신부)



이 시대의 문제점들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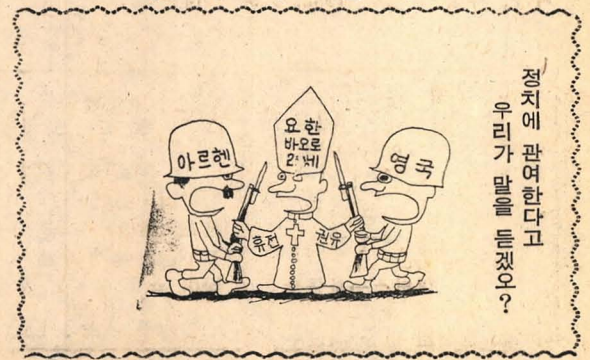
요즘 질서유지 가두 캠페인이 한창이다. 출퇴근 시간이면 갖가지 어깨띠를 두르고 큰길에 서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서 생기를 찾아보기가 딱 어렵다는 점이다. 아마 자발적인 일이 아니라서 그러리라.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지나 얼마나 따분하고 답답하겠는가. 그러한 유의 가두 캠페인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기가 요새 소개되는 마네킹 춤이나 로보트 춤은 뻔뻔하기는 해도 제법 절도있어 보아 출만은 하다.

물가에까지 말을 물고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이지는 못한다. 비록 겉승이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다루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다루어서도 안된다. 질서를 지키는 일도 그렇다. 왜 질서를 지켜야 하는가의 명분이 뚜렷해야 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만이 잘살 수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실정은 어떠했는가? 그렇지 못했다.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대개는 뒤에 처졌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

80년대에 터진 일련의 커다란 사건들 특히 금년에 우리를 놀라게 했던 일들은 하루 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정치체도가 무너진 60년대 이후부터 쌓여온 병폐들의 한 모습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고서 치유를 해야 한다.

이제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무리한 걸음걸이는 멈추어야 한다. 정상적인 체도, 대도를 찾아야 한다. 요란한 나팔소리는 멈추고, 조용히 술선해야 한다. 말없이 보여주는 본보기가 필요하다. 무덤에 아무리 회질을 해도 속에서는 시체가 썩는다는 진리를 묵상하면서.

숲정 이 산책





미사예물 봉헌정신 양양에 관한 공한(요약)

존경하는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삼가 부활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주님께 정성을 드리는 예물 봉헌정신에 관하여 특별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사를 봉헌하는 제단은 예배생활의 중심이요, 하느님 현존의 표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 대한 하느님의 최상주권과 배풀어 주신 은혜를 기리며 거기에 보답하는 뜻으로 하느님께 십일조를 바쳤고, 그 뿐 아니라, 자기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불충하여 범했던 죄악들을 기워 갈고 야훼의 호의를 다시 얻기 위하여 여러가지 희생제물들을 바치곤 하였읍니다.

신약에 와서는 당신 자신을 자유로이 송두리째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현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갚으시고 '한번으로 영원히'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미사성제야말로 예수의 구원적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어 선포하는 신앙고백이며 또한 그분의 구원 은혜를 함께 나누어 누리려는 친교의 제사잔치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요체입니다.

이 미사는 '종말론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는 당신 대리자들을 통하여 재현(기념)함으로써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받도록 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초대 교회 때부터 빵과 포도주 등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고 함께 나누어 먹음(영성제)으로써 그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미사예물 봉헌의 풍습이 생활양식의 변천에 따라 현금봉헌으로 변화되어 오늘과 같은 미사예물 제도와 주일헌금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미사예물 봉헌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치는 자의 지향과 정성입니다. 예물봉헌은 인간들 사이의 물질적 거래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위격적 존재들 사이의 자유로운 사랑의 관계이며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 받는, 자비와 감사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예물 봉헌은 미사성제에 대한 정당한 신심에서 신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마땅히 강조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나 자녀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부모나 어른들을 위하여 미사예물을 봉헌하는 것은 참으로 효도의 근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1982. 5. 14

교구장 직무대행 김 환철 신부

敎區 平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시

—본당 사도회와 제단체의 협조 기대—

교구 평협(회장 梁尙烈)은 평신도 사도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를 각 본당 사도회와 교구단위 단체에 당부했다. 평협의 일은 교구내 제단체의 일이요, 모든 평신도들의 일하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할 뿐이다. 그리고 평협 임원들의 본당 방문 사도직에는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방문 사도직...6월중에는 평협과 본당 사도회간의 일치를 위해 15개 본당을 방문한다. 본당 사도회 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자는데 그 목적이있다.

6월 5일(팔마·둔울동), 6일(대야·오룡동·월명동), 12일(수류·원평), 13일(여산·금마·삼례), 19일(순창·남원). 20일(무주·장계·장수)에 있을 방문은 토요일에는 오후 3시와 8시, 주일에는 오전 11시, 오후 3시와 8시에 실시된다.

□성지(聖地) 보급...한국의 순교 성지와 순교사를 소개하는 「성지」의 보급을 통해서 평신도들의 신앙교육과 평협 재정에 보탬을 기한다. 책대금(3만5천원)은 사도회 책임아래 3개월 할부 판매도 가능하다. 6월 15일까지 주문을 받는다.

□활동상황 통보 요망...사도회와 제단체의 82년도 상반기 활동상황(교육 및 행사)을 통보받아 6월중에 발행될 평협회보에 소개한다. 개인적인 평신도 활동도 소개할 예정이다.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접수되어야 한다. (공문의 보고 시한 정정)

□예술인 협활 파악...교구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문예·미술·음악·분야 중사자 및 전공인)을 파악코자 한다. 우선 해당되는 평신도들이 본당에나 교구 평협에 자신을 알려주는 일이 필요하다. (6월 15일까지)

□성가대장 회의 소집...9월에 있을 교구 합창단 발표회와 기존의 교구 성가대 연합회의 재결속,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가대장 회의를 소집한다. 6월 12일 오후 3시, 가톨릭 센터 3층에 있는 교구평협 사무실에 각 본당 성가대 대표 1인이상의 참석을 바란다.

교구 신학생 시중·독서직 수여

5월 30일(성신강림 대축일) 광주 대전신학대학에서 본 교구 소속 8명의 학사님들이 시중·독서직을 수여 받는다. 다같이 축하를 드리고 기도중에 함께 기억하자.

시중직: 이 성우 마리아(창인동), 김 요안 요한(삼례) 방 의성 베드로(전동)

독서직: 김 전현 아우구스뎬노(북자), 양 경배 베네딕도(전동), 한 윤태 요셉(여산), 박 기준 라우렌시오(장수), 이 등 아우구스뎬노(전동)

아가페 양로원 모 집 안 내

- 종교 불문 · 60~70세의 할머니 · 단체에서 어려움을 주지 않는 건강 · 신착순(늦은면 곤란)
- ※ 꼭 현장을 보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이리역 시내버스→황등삼거리→과수원 하차 2층집)

아가페 정양원 원장 서신부

코오롱 맨스타 효성 맨하탄

전주특약점

바바리·콤비·잡바·T셔츠·남방·사파리·바지·맨하탄 Y셔츠·넥타이 ★ 국민카드 가맹점

전화 ② 4561 김문중(아드리아노)

주단·포묵(훈수·회갑옷) 갑도매상
작중 속, 이불(딕크)카렌지 도매상

서울주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 커피 專門店**

준 Coffee

전진전화국앞, 임금님다방 2층
☎ ③ 5011



□ 제2지구 승천대축일 합동행사

지난 5월 23일(예수 승천 대축일)은 군·읍지구 일치의 날이었다.

이날 시내 중앙국민학교 교정에서 제2지구 5개 본당(대야, 둔율동, 오룡동, 월명동, 팔마)은 합동미사를 봉헌하고 이어서 친선 체육대회를 가졌다. 수천의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져 한 형제애를 나누며 모두 기쁨과 더 깊은 결속에 취한 일치의 순간을 가득 만끽했다.

□ 남원 도서전시와 디스크 포럼 개최

지난 5월 23일 홍보주일을 맞이하여 성 바오로 여자 수도회에서는 남원성당을 방문, 도서전시회와 디스크 포럼을 가졌다.

특히 이날 있었던 디스크 포럼은 전주교구 내에서 처음 시도한 젊은이들의 나눔이었다는데 더욱 뜻이 깊었다. 이 나눔에서 그들은 크리스찬 삶의 본질인 사랑의 행위에 대해 기탄없이 자신들의 문을 활짝 열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주 이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한층 더 부유한 삶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여산 성당에 L·M 꾸리아 창설

5월 23일 승천축일에 여산 성당에서는 여산, 금마 본당 공소 친신자 1일 레지오 연수회를 개최하고 5개 프레스비테리움으로 「순교자의 모후」 꾸리아를 창설했는데, 초대 단장엔 김 종화(마르코)씨가 선임되었다.

이날 여산 청년회에서는 친신자에게 푸짐한 점심을 마련 화기를 돌렸고, 마전공소 어린이들의 첫영성체까지 겹쳐 대성황을 이뤘다. 그리고 연수회가 끝난 후엔 많은 분들이 여산 순교성지 개발 현장을 순례하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함께 치하했다.

□ 팔마의 호도 행렬

군산 팔마 본당에서는 5월을 가정 성화의 달로 정하고 가정 공동 기도운동을 전개하며 가정 성화를 다짐해 가고 있다.

자녀가 없는 부모님들에게는 학생들의 선행으로 자녀로서의 사랑을 드리는 일들이 수출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31일에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께 즐거운 하루를 선물할 수 있는 호도관광의 자리까지 마련한다는 호뜻한 소식이다.

생활한 사랑의 공동체 모습이 구체적인 증거의 삶으로 엮어지는 「팔마」와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베풀어지는 값진 선에 지레 감사를 드린다.

「너와 나의 하느님」 전도지 저자 초대 세미나

존 윌쉬 신부님의 세미나가 6월 4일(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주 중앙성당에서 개최된다.

신부님은 현재 뉴욕 메릴랜드 대학 교수로서 전교학을 가르치고 계신다. 이번에 2주간 일정으로 한국에 오셔서 최근 변화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을 분석하고, 전도지 「너와 나의 하느님」 시리즈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교회 기초 공동체 형성, 교회 쇠신과 명신도들을 위한 지도, 전교사업을 보다 잘 하기 위한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세미나는 신부님, 수녀님, 사도회원, 일반 신자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다. 많은 분들의 참여있기 바란다.

요십이(460) 김병오



꽃과 음악 그리고 휴식이 있는 곳

전주 (꽃) 직매장

전주백화점 옆(판통도로)

대한 도장 공사 지하수 개발공사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
대형기계 보링, 지하수개발
각종 페인트칠 전문, 페인
트 판매, 기타 일절
전화 ④ 4874
김 의 화(요셉)

금·은·보석·시계 일 성 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케이트 내
전화 6429
송 베드로(판통)
남 베로니카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저거)
전주 남문열(대지탕 입구)
전화 ④4989(사구팔구)

□회 소 식

독사뱀 물린데
단시간 치료
◎ 백발 백중 완쾌
전주시 전미동 1가-397번지
<전당리 시내버스 증점
정미소 뒷집>
☎ 5-3544
송준의(발라바)

제 7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전주지구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1일 피정 : 일시-6월 6일 오전 9시~오후 4시, 장소-전동성당
지참물-기도서·성가집·성경·수도복·점심, 회비-1,000원, 대상-전주지구 재속 형제회 회원
2. 양 재철 신부님 출국 : 26일, 양재철 신부님께서 사회사업과 노동사목연구차 독일로 유학 출국하셨다
3. 남자 켄 모임 : 31일(주일) 오후 2시 전주 중앙성당에서
(휘폴라레 운동을 아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4. 대학생 연합회 체육대회 : 일시-5월 30일 9시30분, 장소-전북대학교 운동장.



전화 16번 주임 신부 박창신 사도 회장 이삼영

1. 축! 꾸리아 탄생(순교자의 어머니)
단장-김중화(마르코), 부단장-김정희(레지나)
서기-김용례(루실라), 회계-소은연(테레사)
 2. 성모의 밤 행사(5월 31일 월요일 밤) : 초, 꽃봉헌
 3. 주일학교 학생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4. 예비자 교리 : 주일 공식미사 후 있습니다
 5. 대의원 정기총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제대헌금 하신 분들
서울 상동동 성당(월요기도회)-이메레사(35만원), 박테레사(5만원), 김간디라(3만원), 이마리안나(1만원), 이요셉(1만원), 구엘리사벳(25만원), 영전-김영순(요안나 5천원), 마전-김황홍(3천원), 김동수(5천원)
※ 함열 고려석재 임호기 탁구대 2조 (26만5천원)
 7. 금주전례 : 독서-전영택·변영식, 봉헌-영진구역
차주전례 : 독서-서석권·김종원, 봉헌-남산구역
- 지난주 봉헌금 : 82,070원

2. 전례 : 금주봉헌-교리교사회, 차주봉헌-청년회
- 지난주 봉헌금 : 176,450원



전화 망성 71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최갑철

1. 축! 성신강림 대축일 : 성신 쉼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성체강복 있음
 2. 첫 월례 6 : 6월 4일, 미사 30분전에 와서 교백성사
보기 바람
 3. 주일미사에 관심 : 농번기라도 주일미사만은 빠지지
않으시라
- 지난주 봉헌금 : 71,195원



전화 30번 주임 신부 강덕창 사도 회장 노진래 496번

1. 성신강림 대축일 :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입니다
성신이 빨리 오시어 우리를 안으사 당신품에 영원히
살게 하시도록 간곡히 기도합니다
 2.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3. 구역장 회의 : 다음주
 4. 빠르게시디움 탄생 : 평화의 모후
단장-김명옥, 부단장-현영월, 회계-최영신, 서기-신춘자 ※ 성모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많은 단원을 이루게 하소서
 5. 봉헌 : 은혜에 감사하고 연명을 위하여 살아있는 가
족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6. 봉사 : 예수승천 야외미사를 위하여 신등공소 신자분
들과 행사 진행하신 사도회 임원들께 감사
 7. 전례 : 금주독서-박신근·문영호, 봉헌-성모회
차주독서-양기남·이충호, 봉헌-꾸리아
- ◎ 6월은 예수 성심성월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80,995원



전화 160번 주임 신부 현유복 사도 회장 김종현

1. 예수승천 대축일 행사 : 무사히 마쳤음
※ 신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첫 영성체자 교리반 : 오늘 오후 2시부터
※ 대상자들 빠짐없이 보내 주세요
 3. 사목회 월례회 : 매월 첫주일, 6월 6일 공식미사후
 4. 축! 마리아 군단 꾸리아로 승격 : 6월 6일 첫회합
있음, 각 pr단원 및 협조단원분들 꼭 참여하세요
 5. 미사시간 변경 : 평일 저녁 8시30분
 6. 전례 : 금주 독서-홍기순·김기문, 봉헌-난포구역
차주독서-김재중·이만수, 봉헌-L.M.간부
- 지난주 봉헌금 : 104,750원



전화 0065번 주임신부 서석구 사도회장 김종익

- ☆ 축! 성신강림 대축일 :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은혜로
더욱 굳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